

The Future VI

망설임과 지체함을 이겨야 합니다.

1. 지체하는 신부

[아가서 2:13]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의 핵심은 '신랑'을 향한 신부의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신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가기까지의 신부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가서 1장의 신부와 마지막 8장의 신부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신부의 핵심은 '신랑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 모습은 마지막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오버랩 된다. 그때 신부는 어떻게 하겠는가? 지체함 없이 신랑에게 달려가야 한다. 아가서에 기록된 신부의 성숙도는 '신랑의 초청'에 응답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결국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다.

성경은 '초대'의 기록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초대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결국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아브라함,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은 '초대'의 여정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결정을 묻는 '초대'와 같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장소로 초대하시는 분이시며, 성경의 마지막은 '혼인잔치'의 초대로 끝이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지체함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보라. 미성숙한 신부는 신랑의 초대에 머뭇거린다. 신랑이 너무 좋은 줄 아는데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신랑의 초대에 바로 응답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왜 지체할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선한 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지체할까?

3. Thinker VS Mover

앞으로 미래는 어떤 사람이 주도하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인류가 붙잡은 것이 '기술'이다. 기술은 마법의 열쇠와 같다고 여긴다. 기술로 인간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 마지막이 어디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뇌'이다.

인간은 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알기 위해 노력한다. 인간보다 월등한 존재를 만들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가장 화두가 되는 미래를 여는 기술이 '인공지능'이다. 뇌파를 세밀하고 정밀하게 분석해서 어떻게 인간이 감정을 느끼는지를 뇌 자극을 통해서 알아낸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을 '인공지능'에 접목시킨다.

한 마디로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출현을 말한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없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인간 무용론'이 담론화되고 있는 이유이다. 그래서 미래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각광받게 되어있다.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들, 만들어 내는 '메이커(MAKER)' 들의 세상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을 보라. 믿음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 혼의 영역에 갇혀있지 않다. 사람의 생각, 감정, 계산, 모든 것을 넘어선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 앞에서 할례를 받을 수 있었다. 믿음이 있었기에 여리고를 돌 수 있었던 것이다.

철저히 믿음으로 실상이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이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분석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초대교회를 보라. 그들이 정체되어 있을 때 환난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흠어졌고 움직였다. 에스겔 47장 성전 위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보라.

[에스겔 47:11]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생수의 강이 흘러도 진펄과 개펄에 들어가면 흐를 수 없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생각은 결국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없다.

4. 지체함에 대한 영적 해석

(1) 예와 아멘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체함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순종과 불순종'이다. '홍해를 건널 것인가? 건너지 않을 것인가' 이지 지체함은 없다. '여리고를 돌 것인가? 돌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 지체함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진적 순종'이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자. 예와 아멘의 신앙을 회복하자.

(2) 지체의 불이익

“지체하여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찌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체하면 불순종의 죄를 더할 뿐입니다. 지체하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께 성큼 다가서기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내일이 되면,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위치가 아니라 더 나쁜 상황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대적은 우리 주위에 함정을 튼튼히 하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 함정은 오늘보다 내일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가만히 누워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더 거센 물결에 휩쓸려, 빠르게 내려가서 급류에 가까워지고, 죽음의 폭포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 꾸물거리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영역 밖에 있으면, 도대체 어떤 터 위에 소망을 세우렵니까?”

“단번에 거절함으로 멸망한 사람이 하나라면, 지체함으로 멸망한 사람은 수천이 더 될 것입니다.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도 피할 수 없는데, 거역하면 어찌 피할 것인가요” _ [‘왕의 초대’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갈]